

# 야간 무더위 쉼터 가동

## 전주시, 열대야로부터 독거노인 등 보호 위해

### 금암노인복지관 강당서 개인용 텐트 등 휴식 제공

전주시 금암노인복지관이 노약자를 위해 야간 무더위쉼터로 한시 제공된다.

시는 폭염기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금암노인복지관 강당에 맞춤형 야간 무더위쉼터'를 마련하고 지난 29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범 운영되는 야간 무더위쉼터는 복지관 강당을 활용해 냉방을 제공하고 어른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개인용 텐트와 침구류, 간식 등을 제공해 휴식 및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시와 복지관은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쉼터로 모셔오는 이동편의도 제공한다.

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무료하지 않도록 △건강마사지 △스포츠테이핑 △영양상담 등 요일별 야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맞춤형 야간 무더위쉼터'는 만 65세 이상 홀로거주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와 독거노인돌봄지원센터, 금암노인복지관에 신청 후 폭염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서양열 금암노인복지관장은 "야간 무더위쉼터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담소를 나누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매우 뿌듯하다"며,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무더운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주시가 올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시범 운영하는 맞춤형 무더위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야간 무더위쉼터 지정 운영을 확대해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30일 전북지역 어업인 1000여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앞에서 서해EZZ 불법 바다모래채취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 “서해EZZ 골재채취단지 신규지정 저지”

### 도내 어업인들, 규탄 집회 개최... 군산해경에 형사고소장 제출

군산지역을 비롯해 전북지역 어업인들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서해EZZ 골재채취단지 신규지정 저지를 위한 규탄 집회를 가졌다.

30일 전북지역 어업인 1000여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앞에서 서해EZZ 불법 바다모래채취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어업인들은 골재채취단지 신규 지정 철회, 영터리 해역이용영향평가서 폐기, 형식적인 공청회 중단을 외

치며 바다모래채취 재개에 강력 반발했다.

또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서해바다골재업체 협의체인 해양기초자원협동조합과 어민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고 성토했다.

심명수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은 규탄사를 통해 “불법 골재채취업자의 엄중처벌 및 관리감독자의 공식사과와 불법으로 파헤친 해저지형 원상복

구가 이뤄져야 하고 무허가 불법사추에 기반한 신규단지 지정절차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집회에 참여한 어업인들은 바다모래채취 재개에 앞서 불법채취 해역에 대한 복구와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규탄대회를 통해 어업인들은 골재채취업체 38개사 및 단지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군산해경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덕진구, 여름철 노숙인 지원

전주시 덕진구가 거리 노숙인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현장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거리 노숙인들은 여름철 일사병 등 무더위 질환에 취약해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덕진구는 기동 순찰단을 구성하고 전주역과 터미널 등 다중집합지역을 주1회 순찰하는 등 현장활동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시설 입소 조치 △무더위 쉼터 임시이동 △의료기관 후송 및 의료급여 지원 △비상 핫라인 구축 등 다각적인 대응을 통해 여름철 노숙인들을 도울 방침이다.

이 밖에도 관할 덕진경찰서와 연계해 노숙인 발생 우려지역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소방서와 함께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병원으로 후송할 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보호해나가기로 했다.

김종엽 덕진구청장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만큼 노숙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보호대책을 철저히 운영해 노숙인들의 안전사고 및 질병을 예방하고, 사회복귀 및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전주 서학동예술마을 도시재생대학 운영

### 내달 22일부터 10월까지

전주시가 성공적인 서학동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에 나선다.

전주 서학동예술마을 현장지원센터는 오는 8월 14일까지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2019도시재생대학' 참가자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8월 22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도시재생대학에서는 △서학동예술마을 도시재생사업 설명 △문화기반 도시재생 이해 및 국·내외 사례 △도시재생 내 주민소통과 의사결정 △도시재생 현장 답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문화기반 도시재생에 대한 눈높이 교육과 현장 답사, 실습 워크숍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서학동예술마을 주민들은 이번 도시재생대학에서 함께 고민하고 협의의 내용을 향후 실천에 옮겨 자신과 이웃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 문제 해결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게 된다. /송효철 기자

### 익산시 심정지 환자 소생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는 29일 익산 소재 모 헬스장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가 목격자와 5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생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60대 남성 이 헬스장에서 운동중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팔봉1902전센터 구급대원은 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전문응급처치를 실시하며 병원 이송 중 자발순환이 확인됐다. /익산=장민희 기자

## 스마트한 변화... 모바일 앱 ‘호응’

### 전북대병원, 앱 오픈 한달만에 3만건 돌파

“전화로 진료예약을 하지 않아도 되고 보험회사에 전달할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 편리합니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환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용 스마트 모바일 앱’을 오픈한지 한달 만에 접속 3만건을 돌파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이달초부터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진료예약에서 진료비 결제, 실손보험 청구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모바일 토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대병원이 모바일 앱 운영을 시작한 후 한 달여 만에 접속건수가 3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앱을 이용한 고객들의 가장 많은 접속 건수는 의료진 검색(3149건, 12.2%)이었으며, 진료일정(2985건, 11.6%)과 진료예약(2524건, 9.8%)이 다음을 차지했다.

이어, 진료일정확인(2397건, 4.8%), 진료내역조회(1340건, 5.2%), 검사결과조회(1283건, 5%) 순으로 이어졌다.

모바일 앱의 가입자는 40대가 25%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50대가 24%로 40대와 50대가 절반을 넘었다.

40대와 50대의 병원이용 빈도가 많고 스마트폰에 비교적 익숙하기 때문에 풀이되고 있다.

이어, 30대 21%, 60대 이상 12%, 20대 1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료가 아닌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예약을 하고 병원을 방문해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것도 큰 불편 중의 하나였다.

전북대병원이 모바일 앱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스마트폰을 이용해 진료예약과 결제, 실손보험청구까지



간편하게 해결되고 있다.

스마트 모바일 앱을 이용해 진료를 예약하고 병원을 방문하면, 환자를 자동 인식해 환영메시지를 받는다.

내 일정을 확인하면 오늘 진료해야 할 사항을 차례대로 확인하고, 진료실에 방문하지 않고 원격으로 접수를 신청할 수 있다.

진료 후에는 수납에 들릴 필요 없이 앱으로 진료비를 결제하고, 실제 처방을 기반으로 건강정보 및 혈압, 혈당 등의 수치 추이 그래프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보험가입 환자가 보험회사 전달할 서류도 앱으로 청구하면 된다.

조남천 병원장은 “모바일 앱 서비스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특화된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진료예약부터 서류청구까지 한

꺼번에 해결되면서 고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앱을 이용하여 병원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기를 바라며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병원 모바일 앱을 설치하려면 안드로이드 또는 구글 앱스(SNS)를 통해 ‘전북대학교병원’을 일컫고 다운로드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 보호관찰 상습위반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 남원 보호관찰소

법무부 보호관찰소 남원지소는 7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A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음에도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도망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A씨는 징역 6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보호관찰대상자는 관련법에 따라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한편 마상철 남원지소장은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재범을 차단하는 등으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야호학교 기자단 1기 위촉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학부모에게 전 주형 창의교육 모델인 야호학교를 알리는 기자단으로 활동한다.

야호학교는 청소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하고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의 기술을 배우는 곳으로, 현재 로컬·특화(학교연계, 예술특화, 지역연결)·아미프로젝트, 야호 아카데미, 지역풀밭굴 등 다양한 창의형 교육을 진행 중이다.

기자단으로 위촉된 청소년 15명은 평소 글쓰기와 SNS활동, 미디어 매체 등 영상제작에 관심있는 청소년들로, 이들은 이태훈(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근무) 강사로부터 야호학교 기자단의 개념 및 미디어의 이해 △기성 작성법 교육 및 취재 활동 계획 설계 및 구상하기 등 실전에 필요한 홍보교육과 취재 방법 등을 배웠다.

교육을 수료한 기자단은 블로그 및 SNS 활동 등을 통해 야호학교의 다양한 프로젝트 및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등 야호학교를 홍보한다.

박재열 전주시 교육청청소년과장은 “청소년들로 구성된 야호학교 기자단이 전주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창의형 교육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숨은 조력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호학교는 현재 팔복예술공장·한국전통문화전당과 협업으로 2019년도 예술 특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주시 교육청청소년과(063-281-5311, 271-532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송효철 기자

## 군산서 머리에 화살촉 박힌 고양이 사건 경찰 수사

### 고양이 사건 경찰 수사

군산에서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고양이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30일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관련 사건에 대해 공식으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양이 머리에 박힌 물체는 3개의 날이 달린 사냥용 화살촉으로 확인됐다. 고양이는 한쪽 눈을 잃고 두개골이 뚫리는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화살촉이 뇌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인간의 잔인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 사건”이라며 “동물자유연대는 범인을 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군산시 신동동 일대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머리에 못이 박혀 눈두덩이가 부어오른 상태에서徘徊하는 모습이 목격돼 동물단체들은 20여일 만에 포획 틀을 이용해 고양이를 잡는 데 성공했다. 이 고양이는 광주의 한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다. /김석훈 기자

## 전주 탄소제품,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

### 10월 27일까지 주기율표 제정 150주년 기념 특별전 참여

전주에서 생산된 탄소제품이 국립중앙과학관(대전 소재)에 특별 전시된다.

전주시와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30일부터 오는 10월 27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되는 ‘주기율표 제정 150주년 기념 특별전’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2019년 UN이 지정한 ‘국제 주기율표 제정 150주년’을 맞아 과학 분야의 진흥을 위해 원소들의 다양한 활용 및 연구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열린다.

전주시와 기술원은 이번 특별전에서 세상을 변화시킨 6대 주요 원소 중 ‘탄소’를 알리기 위해 초경량 탄소 자전거, 탄소 스포츠 용품 등을 전시하고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기술원은 지난해에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과학의 날 특별 전

시’에서 3D프린팅 제조기술과 탄소복합재를 활용해 제작한 친환경 커피머신을 전시했다.

방은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은 “기술원이 탄소기술 개발 중심기관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탄소산업 홍보 대사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탄소의 이해를 높이고 탄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기율표란 원소를 구분하기 쉽게 설정에 따라 배열한 표로, 1869년 러시아 화학자인 멘델레예프(Dmitri Mendeleev, 1834~1907)가 처음 제안했다.

주기율표에는 현재까지 알려진 118가지 원소가 담겨져 있으며, 이에 UN은 올해를 ‘국제 주기율표의 해’로 지정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 횡단보도에 ‘장수의자’ 설치

전주시 주요 횡단보도에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이 신호를 대기할 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의자가 설치된다.

전주시는 올해 총 100여 만원을 투입해 횡단보도에 신호를 대기할 때 잠시나마 쉴 수 있도록 신호등 주위에 장수의자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사업대상 지역은 △평화동지하보도(2) △평화동 꽃밭정(4) △충남문교차로(4) △효자동 KT사거리(4) △전주역(2) △교동 르윈 호텔(4) 등 6



개 교차로에 총 20세트의 장수의자가 설치된다. /송효철 기자